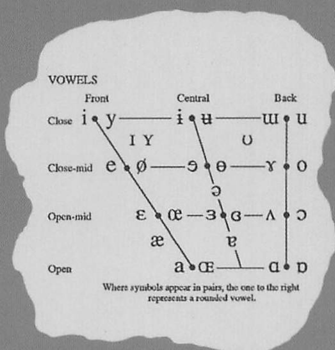
음운론 연구와 음성전사

유필재 지음



UUP

음운론 연구와 음성전사

음운론 연구와 음성전사

유필재 지음

UUP

음운론 연구와 음성전사

2005년 1월 19일 초판 인쇄
2005년 1월 25일 초판 발행

지은이 유 필 재
발행인 정 정 길
편집인 김 호 연
발행처 UUP(울산대학교출판부)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 동 산29번지
☎ 052-259-2488, FAX. 277-3011
등록 울산시 제20호(2000.3.24)

ISBN 89-7868-852-7 정가 4,000원

머리말



이 책은 2002년 7월 8일 국어학회 주최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열린 '국어학회 집중강좌' 중 '음운론 연구와 음성 전사' 부분을 간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내용도 당시의 강좌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의 '중철의 음운론적 해석'은 이번 간행 시 새로이 덧붙인 것입니다. 책의 분량이 적은 것도 당시 강좌에 할당된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하라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강의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필자의 바람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음운론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음성과 관련된 지식, 특히 전사 및 그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로 제 경험상 이 정도의 음성학적 지식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음운론의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간단한 음성학 지식이 있는 대학원생이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흔히 음운론은 언어학도들로부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념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음운론의 어려움은 실제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합

니다. 현재 서울말의 단모음은 몇 개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자 'ㅚ, ㅟ'에 해당되는 모음은 단모음인가 이중모음인가, 혹은 단모음도 있고 이중모음도 있는가? 이런 문제는 음운론의 음소 확인 방법, 이를테면 최소대립쌍 확인, 상보적 분포 등으로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운론 연구를 위해 직접 자료와 만나면 음운론 개론서에서 다룬 내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Chao, Yuen Ren, ≪Language and Symbolic Systems≫(CUP, 1968, pp.48-50)에서 다룬 'marginal phoneme'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분량이나 내용상으로 애매한 면이 많은 원고가 간행된 것은 울산대학교 출판부의 후의 덕분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저를 불러 내어 자료들과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 준 분들은 방언조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제보자분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논문과 저서를 통해 지식을 전달해 준 여러 연구자들입니다. 이 책 역시 조그만 지식이라도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유 필 재

음운론 연구와 음성전사

차례



★ 머리말/5

1. 음성전사란 무엇인가? 9
    - 음운론 연구와 음운, 음성 9
    - 정서법 10
    - 음성전사 - 정밀전사와 간략전사 11
    - 음운전사 14
    - 음성전사에서 음운론 연구로 21
    - 참고 22

2. 정확한 전사 23
    - 선입견이 없는 솔직한 마음 23
    - 훈련 29
    - Daniel Jones의 기본모음 30
    - 초분절음의 전사 34

3. 전사의 실제 39
음절말 장애음의 변이음 실현 39
모음 'ㅜ'의 발음 44
전사와 기저형 설정 47
참고 59

4. 음운론적 해석 61
문자 'ㅓ'에 해당하는 서울말 모음 61
'뚜ㅕ: 간다'는 어떻게 표기할까? 69
중첩의 음운론적 해석 76

★ 國際音聲字母 / 83

1. 음성전사란 무엇인가?

음운론 연구와 음운, 음성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대개 음운론(音韻論 phonology)이라는 용어에는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음운론은 언어학의 하위 분야 중 하나이지요. 음운론이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음운(音韻 phoneme)입니다. 음운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간단하게 '의미를 구별시키는 최소의 단위'라고만 해 둡시다. 한글자모로 쓰면 'ㅁ, ㄷ, ㅏ, ㄹ' 등이 한국어의 음운입니다. '말(馬)'과 '달(月)'에서 'ㅁ'와 'ㄷ'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시키면서, 더 이상 작은 것으로는 쪼갤 수 없는, 한국어의 음운입니다.

굳이 '한국어의 음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개별 언어마다 음운의 구체적인 목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도'라는 단어를 한국어가 모어(母語 mother tongue)인 화자가 말했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화자이겠지요. '다도'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종류의 음운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3 개라고 답할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영어나 일본어가 모어인 화자에게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여러분과는 달리 4 개라고 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4 개냐고 묻는다면 't, a, d, o' 4 개라고 답하겠지요. 사실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다도'라는 단어는 [tado]처럼 발음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렴풋이 느꼈겠지만 이처럼 음운은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실제 소리로는 [tado]이지만 한국어가 모어인 청자는 이 [t]와 [d]를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소리인 [t]와 [d]를 하나의 음운 'ㄷ'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실제 소리 't, d' 같은 것은 음성(音聲 phone)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음운론 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상은 추상적인 음운이 아니라 구체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음성들이 개별언어에서 어떻게 의미를 구별시키는 데에 사용되는가는 음성을 접한 후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음운론 연구의 첫 단계는 실제로 접하는 구체적인 음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서법

그렇다면 연구의 자료로 사용될 음성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서

법(正書法 orthography)입니다.

그 때는 돈이 없어

제보자의 발화를 듣고 이상과 같이 정서법(흔히 '맞춤법'이라고도 합니다.)에 맞추어 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전형적인 중부방언을 말하는 70대의 이상의 화자라면 이같은 표기법으로는 몇 가지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우선 '돈'과 '없어'의 '없'은 길게 발음하는데 이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없'의 모음 'ㅓ'와 '어'의 모음 'ㅓ'는 달리 발음되는데 이러한 사실도 이 표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서법은 규범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어학 연구를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음성전사 - 정밀전사와 간략전사

한글자모만으로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음성을 표기하기 위한 별도의 기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음성기호(音聲記號 phonetic symbol)라고 합니다. 음성기호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대표적으로는 Sweet, Jespersen, Pike 등) 개발된 것이 있지만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국제음성협회(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에 의해 제안된 국제음성자모(國際音聲字母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입니다. 보통은 줄여서 IPA라고 부릅니다. 국제음성자모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모식이고 그 자모들이 현재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로마자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쉽게 세력을 얻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음성기호가 되었든간에 음성기호를 써서 실제 발화되는 음성을 필요한 범위에서 있는 그대로 표시하는 방법을 음성전사(音聲轉寫 phonetic transcription) 혹은 음성표기(音聲表記 phonetic notation)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예문 중 '없어'만을 음성표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ə:ps'ʌ]

여기에서 사용된 기호는 모두 IPA인데 ə 는 ʌ 보다 더 앞쪽에서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모음입니다. 콜론처럼 보이는 기호는(:)는 해당 모음이 장음임을 나타냅니다. 또 음성표기는 예에서 보는 것처럼 대괄호(bracket)로 묶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음성전사는 음성 특징을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표기해 줄 것인가에 따라 '정밀전사(精密轉寫 narrow transcription)'와 '간략전사(簡略轉寫 broad transcription)'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밀전사는 말 그대로 해당 언어의 음성이 가진 특징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표기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음성만을 전문

적으로 연구하거나 혹은 방언 간의 미세한 음성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지요.

표기상 '외'에 해당하는 모음은 서남방언에서도 단모음(單母音 monophthong)으로 발음되고 서울말에서도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PA에서 이에 해당하는 기호는 [ö]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모음이면서도 서남방언의 '외'와 서울말의 '외'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남방언의 '외'는 전형적인 전설원순모음으로 이 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지고 앞으로 돌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말의 '외'는 입술이 그렇게까지 동그랗게 모아지지도 않고 앞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서울말의 '외'는 원순성이 매우 약한 셈입니다. 이것은 서남방언과 서울말의 중요한 음성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IPA에는 이런 세밀한 음성 특징을 표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조기호(diacritics)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서울말의 '외'는 정밀표기로는 [ö ˓]와 같이 될 것입니다. (원래 보조기호 ˓ 는 모음 밑에 있지만 편집의 어려움으로 옆에 써 넣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의 예와 같은 목적이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 간략전사를 사용합니다. 간략전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보조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조기호가 아니더라도 인쇄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호를 쓰고 미리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같은 단어에 사용되는 'ㄹ'은 흔히 [r]로 표기하는 일이 많은데 이 [r]은 원래는 혀끝

을 잇몸에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설전음(舌顫音 trill)입니다. 이 때의 'ㄹ'은 혀끝을 잇몸에 한 번만 붙였다가 떼는 탄설음(彈舌音 flap)이고 이를 위해서는 [ɾ]과 같은 기호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어처럼 [r]과 [ɾ]을 모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면 쓰기 어려운 [ɾ] 대신에 자판에도 있는 [r]을 쓰고 미리 이 기호가 탄설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일러주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정밀전사와 간략전사는 '정밀'과 '간략'이 주는 느낌 때문에 흔히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간략'한 것보다는 '정밀'한 것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몇몇 한정된 목적(음성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방언 간의 미세한 음성차 기술 등) 외에는 정밀전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밀전사를 한다는 명분에 사로잡혀 보다 중요한 음성 사실을 놓치고 전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음성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음성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솔직한 마음가짐입니다.

음운전사

음성표기에 음운론적 해석을 가해서 표기한 것을 음운전사(音韻轉寫 phonological transcription) 혹은 음운표기(音韻表

記 phonological notation)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음성표기를 종이 등에 직접 써 놓은 후에야 다시 음운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해당 언어(혹은 방언)에 대한 음운 목록이 확립되어 있다면 직접 음운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언조사에서는 조사의 도입 단계에서 최소대립쌍을 이용해서 음운 목록을 확인하고 음운 목록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는 음운전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음운론적 해석'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영어의 seat 와 sit 는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할까요? 혹시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를 위해서 이런 종류의 발음 차이를 외웠던 사람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영어 모어 화자가 있다면 이 두 단어를 발음해 보도록 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 보십시오. 아마 seat 는 모음이 길고 sit 는 모음이 짧을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이라면 seat 의 경우가 더 고모음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영어사전을 펼쳐서 두 단어의 발음기호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사전에서의 발음기호는 말할 것도 없이 음운표기입니다. 음운표기에는 음성표기와 달리 사선(slash)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전은 아마도 아래와 같이 발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선이 아니라 대괄호를 쓴 사전이 많을테지만 내용은 음운표기입니다.

seat /siːt/
sit /sit/

그러나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같은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물론 이 사전 외에도 이렇게 발음표시가 된 사전은 꽤 많습니다.

seat /siːt/
sit /sɪt/

자세히 보면 sit 의 모음이 소문자 /i/가 아니라 대문자(그러나 소문자와 크기는 같은) /ɪ/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대문자 /ɪ/는 /i/와는 다른 모음입니다. /i/보다 입을 더 벌리고, 더 뒤에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ɪ/는 이완모음, /i/는 긴장모음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두 사전의 발음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의 사전은 seat 와 sit 의 발음 차이는 단순히 장·단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마치 한국어의 '눈(目)'과 '눈:(雪)'의 관계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뒤의 사전은 두 단어의 모음이 별개의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seat 의 모음은 길기 때문에 장음인 것을 표시해 준 것뿐이지요.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입장을 더 명확히 해서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에 출간된 ≪Macmillan English Dictionary≫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음 표기의 예입니다.

seat /sit/
sit /sɪt/

이 때 /i/는 길고 강한 모음, /ɪ/는 짧고 약한 모음입니다.

이렇게 같은 영어 발음이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사전은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편이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영어 seat, sit

甲 /si:t, sit/ 乙 /si:t, sɪt/ 丙 /sit, sɪt/

이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영어 seat, sit 의 발음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습니다. 위의 세 가지 발음표시는 모두 연구자의 '음운론적 해석'이 개입된 음운표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음성표기 [ə:ps'ʌ]는 저의 해석에 따르면 /업:

써/ 혹은 /업 ㅆ:어/처럼 표기됩니다. 우연히 음성표기는 IPA를, 음운표기는 한글자모를 쓰게 되었지만 표기에 사용되는 기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논자에 따라서는 앞서의 음성표기 중 간략표기를 음운표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만 아무리 단순화된 간략표기라 할지라도 '음운론적 해석'이 빠져서는 음운표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운전사와 비슷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또다른 전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음성표기 [ə:ps'ʌ]를 /업:써/로도 /업 ㅆ:어/로도 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엄격하게는 /업:써/가 음운표기입니다. /업 ㅆ:어/는 {無}에 해당하는 기저형을 //업 ㅆ:-//으로 가정하고 이를 표기에 사용한 이른바 '형태음운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운표기에 '형태론적 해석'까지를 가한 표기라고 하겠습니다. 형태음운표기의 장점은 독해가 용이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래의 두 예를 비교해 봅시다.

A. 나 태껸 밸 때예는 그 때에는 열뚜살 열쎄살 고맨데 여기 인왕산 기슥 미테 임 호선생이라구 읻써. 임 호. 수풀 림짜 호랭이 호짜. 그 냥반이 여그서 우리 아버님 형님허구 다 모두 친형제가치 지내던 양반인데 그때는 그래가지구 내

가 열네살 대니깐 축굴 했꺼든. 축꾸가 고때 외국서 들어오던 고해야. 그래가지구선 난 드롸가지구선 일으니까 내가 인자 화를 좋아하거든. 근데 활을 시자글 헐려구 하는데 우리 아버님 친구 되는 양반이 알해라구 불러서 거 갇뜨니 화를 쏘아보라구 그러는 거야. 그러자 화를 쐈떠니 활 다섯깨가지구설랑 한 대를 처음에 맞촨꺼든. 근데 우리 아버님 친구드리 나더러 이제 저만허면 쓴다구 조놈이 팔심두 딩딩허구 이제 기운도 읻쓸 껀깐드루 그 때두 한창 기운두 세. 화를 쏴서 난 낻뜨니 인제 고만 고걷 때민에 그리 올라서구 주글 동안 물러낟따구.

B. 내가 와룡동에서 나 가지구, 여섯살에 원서동으루 이사갔지. 창덕궁 건네편 짝 그 집이 대궐 뒷문 짝에 있었어. 그 대궐이 지끔 뒷문이 있는지 몰라? 난 안 가 봤어. 거기꺼정 있겠지. 뭐 그 문.
세째집 갈 적에는 그리루 지나가거든. 그럼 은행나무 그저 있어. 나 어려서 줏으러 댕기던 풀밭 그 안쪽에 아주 늙은 은행나무가 있어. 전에 그 은행나무를 일본 사람이 읎앨랴 그랬대. 근데 그거를 파니까는, 벨안간에 그냥 천둥 번개를 허구, 비가 쏟아져서, 허다가 못해서, 그 은행나무가 그저 있어. 아주 아람드리 같은데, 지끔 늙었드라. 은행두 많이 열렸어. 그 풀밭에서, 은행나무 있는 데서 이렇게 보면, 우리집이 비었었거든. 근데 거가 없어졌어.

(A)는 宋玄鎬, <서울 地域語의 助詞>(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6:115)에 실린 서울말 전사 자료입니다. 본문에 명시한 대로 "구술자와 제보자의 말은 발음 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B)는 목수현 편, ≪밥해 먹으믄 바느질허랴,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랴≫(뿌리깊은나무, 1991:21)에 실린 서울말 자료입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전사했는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한국어의 맞춤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음운표기, (B)를 형태음운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번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후자가 훨씬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논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원칙을 정하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나면 형태음운표기가 전사할 때도 더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A)같은 음운표기가 소리나는 대로 적기만 하면 되니까 받아적기도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A)를 보면 아주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사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예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축구'도 '축굴'처럼 전사하다가도 '축꾸'로 쓰기도 합니다. {弓}에 해당되는 명사도 '화를'처럼 썼다가 '활을'로 쓰기도 합니다. 한글맞춤법의 간섭을 받은 것입니다. 음절말 중화를 반영해서 '읻써, 핻꺼든, 고걷'처럼 쓰다가도 '맞췄꺼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태음운표기는 '원칙'을 주도면밀하게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작업을 할 때는 통일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기저형을 무엇으

로 정하느냐는 이론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어의 '팔자'를 생각해 봅시다. '팔자'는 한자어 八字이고 한자어에서 선행 음절의 末子音이 'ㄹ'이고 후행하는 음절의 頭子音이 'ㄷ, ㅅ, ㅈ'이면 경음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음운현상입니다. 그래서 '發達, 發想, 發展'은 /발딸, 발쌍, 발쩐/으로 발음되지만 '發病, 發見'은 /발병, 발견/으로 소리납니다. 이런 현상을 생각하면 '八字'를 /팔짜/로 발음하는 것은 규칙적인 현상이므로 '팔자'로 써야 할 것 같지만 어떤 연구자는 '팔짜'로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절하다(切切하다)' 같은 예를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태음운표기는 나중에 실제 발음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음성전사에서 음운론 연구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음미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화한 감이 없지 않지만 음운론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음성 → 음성표기 → 음운표기
[정확한 전사] [음운론적 해석]

음운론적 연구에 착수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우선 구체적인 음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표기에 음운론

적 해석을 가하여 음운표기를 확정지음으로써 연구자는 음운 목록, 음운 체계 등 해당 언어와 관련된 음운론적 문제를 풀어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성전사와 음운론 연구는 서로 연결됩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다룰 내용은 주로 이 '정확한 전사'와 '음운론적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전사할 수 있는지 또 해석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떤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앞에서는 전사(轉寫 transcription)와 표기(表記 notation)를 구별없이 사용했지만 전사는 행위 그 자체를, 표기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로 구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의 seat, sit 의 예는 David Crystal,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Blackwell, 1997)를 참조한 것입니다. 영어 모음에 대한 이런 해석의 차이는 다른 모음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fool과 full의 해석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연구자 甲, 乙, 丙의 해석은 다음과 같겠지요.

甲 /fu:l, ful/　　乙 /fu:l, fʊl/　　丙 /ful, fʊl/

2. 정확한 전사

선입견이 없는 솔직한 마음

앞에서 성공적인 음성전사를 위한 두 가지 요소로 훈련과 마음가짐을 든 바 있습니다. 비교적 내용이 간단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는 음성전사를 할 때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귀에 들리는 사실에 솔직하게 따라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아주 당연하면서도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서울 토박이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서울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지만 그 중에서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온 제보자를 찾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서울말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논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제보자를 접하여 서울말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후에 그 중에서 몇 분의 제보자를 선별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어느날 70대의 남성 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短}을 의미하는 용언의 활용형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마치 음절말 위치에서 두 개의 자음이 나타나는 듯한 발음을 들었습니다. IPA로 써 본다면 아래와 같이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의 파찰음 'ㅈ'은 엄밀하게 말하면 후부치경음(postalveolar) 'ʧ'가 아니라 치경경구개음(alveo-palatal) 'tɕ'입니다.)

tɕ'alpt'a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tɕ'alt'a(짤따)'로 고쳐 쓰고 말았습니다. 한국어의 음절구조상 음절말 위치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제보자는 이런 '이상한' 발음을 몇 번인가 했지만 그 때는 아예 이것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자음군단순화 규칙에 맞추어 적어 버렸습니다. 표기에 이끌린 발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제보자에게도 이런 발음을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제보자는 1906년생이면서 친가와 외가 모두 사대문 안 출신이라서 모든 조건이 훌륭한 제보자였으므로 자료의 신뢰성 자체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록해 놓은 것 중 두 예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palkt'uruk (밝두룩)
ilkt'ɯra (읽드라)

조사노트에는 이렇게 써 놓았지만 그 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잊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로 한글자모로 음운전사를 하고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어형만 IPA를 이용해서 전사하는 편입니다. 방학이 끝나고 방언조사 나가는 날이 적어지면서 이 특이한 발음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연구사를 정리하기 위해 Kim-Renaud Y. K., ≪Korean Consonantal Phonology≫(탑출판사, 1975)를 읽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저를 놀라게 했던 그 구절을 다듬어서 옮겨 봅니다(135, 136쪽).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본문 발음 중 자음 오른쪽 어깨의 '˺'은 해당 자음이 불파음임을 표시합니다.

When the liquid l is followed by a stop or nasal in syllable final position, the l is optionally deleted:

[ɨlp˺t'a] ~ [ɨp˺t'a]
[ilk˺t'a] ~ [ik˺t'a]
[kolmt'a] ~ [komt'a]

그 당시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논문은 그

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읽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논문의 자료가 서울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들이대며 펭개쳤던 자료들은 실제로는 서울말의 중요한 한 특징을 말해주는 소중한 예들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보고는 이호영, ≪국어음성학≫(태학사, 1996)에도 있습니다(144쪽).

> 겹받침 ㄼ, ㄿ, ㄺ은 화자에 따라 첫소리만 발음되기도 하고, 둘째 소리만 발음되기도 하고, 두 소리 모두 발음되기도 한다.
>
> 밟다 [발따]/[밥따]/[밟따],
> 읊다 [을따]/[읍따]/[읊따]
> 기슭 [기슬]/[기슥]/[기슭]

그 뒤에 저와 조사를 같이 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조사 결과를 국립국어연구원에 보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Ⅰ≫(1997)로 간행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palptɕ'i (96쪽), palpt'ɨra (97쪽)
> ku:rkt'a (25쪽)

용언 자음군 어간에서 보이는 이런 어형은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들을 수 있다든지 하는 미세한 발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선입견은 순수히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어의 음절구조라는 좁은 틀에 갇혀서 자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학문에 대한 저의 옹졸했던 태도를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이상의 자료들에 대한 정리로 본 장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의 자료들은 모두 서울말에서 음절말 자음군의 발음이 수의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세부적인 사실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Kim-Renaud Y. K(1975)는 파열음이나 비음이 뒤따르는 ㄹ계 자음군이 모두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든 예를 보면 체언은 없고 모두 용언뿐이며 자음군 'ㄼ, ㄺ, ㄻ'에 한정됩니다. 둘 중 하나가 탈락할 경우에는 반드시 'ㄹ'이 탈락합니다.

이호영(1996)은 이런 현상을 보이는 자음군으로 'ㄼ, ㄺ, ㄿ'을 들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체언의 경우에도 자음군이 음절말에서 발음되는 것이 가능하며(기슭 /기슭/) 둘 중 한 자음이 탈락할 때는 어느 자음이나 탈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밟다 /발따~밥따/).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Ⅰ≫(1997)과 저의 자료가 보여주

는 양상은 위의 두 논저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시 한 번 모두 한자리에 모아 보겠습니다.

tɕ'alpt'a, palptɕ'i · palpt'ɨra
palkt'uruk, ilkt'ɯra, ku:rkt'a

우선 음절말에서 자음군이 모두 발음되는 것은 용언의 활용형에 한정되며 어간 말음이 ㄼ(짧다, 밟다), ㄺ(밝다, 읽다, 굵:다)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때 어미의 두음은 'ㄷ, ㅈ'으로 이른바 [-grave] 자질을 가진 것뿐입니다. 또 만약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할 때는 탈락하는 자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상은 표준어와 비슷합니다. 먼저 'ㄼ'일 때는 'ㅂ'이 탈락합니다(예 : 짤씁니다). '밟다'만은 예외인데 다음과 같이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납니다.

밥:습니다, 밥:지 마:라, 밥:는다, 발:꾸, 발:께

'ㄺ'일 때는 후행 자음이 'ㄱ'이면 'ㄱ'이 탈락하고(예 : 굴:께) 그렇지 않으면 'ㄹ'이 탈락합니다(예 : 국:다).

한편 자음군단순화를 일으키지 않고 음절말에서 두 자음을 모두 발음하는 이 현상은 서울 토박이 중에서도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만 더러 관찰되고 그 실현 자체도 산발적입니다.

훈련

이제 훈련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음성전사를 위해서는 제보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능력은 대개 연습을 통해 갖추어집니다.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훈련은 몇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러한 훈련을 마친 교사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대학에 '음성학' 혹은 '조음음성학'같은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배울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주위에 이런 교사가 없어서 직접 배울 수 없다면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의 발음이나 해설이 녹음된 카세트테이프, CD 등을 들으면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보자를 접하면서 조사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도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이 때 제보자의 언어(방언)가 조사자의 언어(방언)와 다르면 다를수록 흥미를 가지고 연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나 언어학과에서는 대개 1년에 한 번정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언조사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그리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음성 훈련을 위한 카셋트테이프는 그 분량이 아주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표준적이고 간단한 국제음성협회(國際音聲協會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줄여서 IP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자로는 국제음성자모와 같습니다.)의 발음 테이프를 소개할까 합니다. 국제음성협회에서는 국제음성자모에 대한 발음을 녹음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테이프 하나에 협회에서 정한 모든 음성자모의 구체적인 발음을 담았습니다. 요즘은 CD로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구입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www.phon.ucl.ac.uk/home/wells/cassette.htm

특히 자음의 경우에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생소한 것이 많으니까 한 번 들어보면 재미있는 발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Daniel Jones의 기본모음

모음은 자음에 비해 기술하기도, 전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음과 달리 모음은 구강 내에서 폐쇄나 협착(狹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음은 대개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전후 위치에 의해서 소리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

만으로도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모음을 기술하거나 전사하기 위해서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영국의 음성학자 Daniel Jones(1881-1967)에 의해 제안된 기본모음(基本母音 Cardinal Vowels)을 쓰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IPA에 제시된 모음들도 그 후에 추가된 몇몇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Jones의 기본모음을 수용한 것입니다.

Jones의 기본모음은 개별 언어의 모음 음가를 기술, 전사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reference)'으로 사용됩니다. 다시말해서 이 기본모음은 실재하는 언어의 모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순수히 Jones 자신이 이론적으로 구상해 낸 척도(尺度)인 것입니다. 거리를 재기 위한 자[律尺]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모음 'ㅓ'는 기본모음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발음되는 모음이다."같은 기술은 마치 "이 물건의 길이는 5와 10센티미터 사이이다."같은 기술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간혹 이런 당연한 사실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모음은 다음과 같이 모음사각도(母音四角圖 vowel quadrilateral)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9) i y ɨ ʉ ɯ u (16, 8)
(17, 18)
(2, 10) e ø ɤ o (15, 7)

(3, 11) ɛ œ ʌ ɔ (14, 6)

(4, 12) a ɶ ɑ ɒ (5, 13)

이 기본모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었는지는 Daniel Jones의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9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8/1972)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본모음 1번과 5번은 생리적인 기준으로 정합니다. 모음이 발음되는 범위 내에서 혀를 최대한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리고 입술을 평순으로 발음한 것이 기본모음 1번 [i]입니다. 이 모음보다 혀를 더 올려서 발음하면 경구개 마찰음 ʝ 이 발음됩니다.(원문에는 j 로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발음되는 범위 내에서 혀를 최대한 낮게, 그리고 뒤로 하고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고 발음한 것이 기본모음 5번 [ɑ]입니다. 이보다 혀를 더 뒤로 하면 구개수(口蓋垂, uvular) 마찰음 ʁ 의 변이음(變異音 allophone)이 발음됩니다.

나머지 기본모음들은 청각적 기준으로 정합니다. 물론 Jones 개인의 청각적 기준입니다. 기본모음 2 [e], 3 [ɛ], 4 [a] 는 전설모음으로, 기본모음 1 과 5 사이에 놓이며 1에서 5 사이의 5

개의 모음간의 청각상의 거리는 등간격이 되도록 합니다. 또 기본모음 6 [ɔ], 7 [o], 8 [u] 은 후설모음으로, 기본모음 1에서 5 사이의 청각상의 등간격을 계속 유지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 8 개의 모음을 1차 기본모음(primary cardinal vowels)이라고 합니다.

1차 기본모음들은 1번에서 5번까지는 비원순모음이고 6번에서 8번까지는 원순모음입니다. 원순인 모음은 비원순으로, 비원순인 모음은 원순으로, 입술 모양을 바꾼 것들이 다시 기본모음이 됩니다. 여기에 중설모음인 [ɨ]와 [ʉ]를 합친 것이 2차 기본모음(secondary cardinal vowel)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D. Jones(1918/1972)에는 2차 기본모음들에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12번 모음 [œ]도 기술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Jones 자신에 의해 녹음된 기본모음과 이에 대한 해설집에는 2차 기본모음들의 번호도 부여되어 있고 [œ]도 기본모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Jones의 이와 같은 기본모음 설정 방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학자도 없지 않지만 현재는 이 기본모음이 모음을 기술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으므로 여러분도 이 기본모음을 익혀서 사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Jones 자신이 그의 나이 75세인 1956년에 이 기본모음들을 녹음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모음의 음가가 완전히 몸에 배일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본모음의 녹음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네덜란드 Utrecht 대학의 음성학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uilots.let.uu.nl/~audiufon/data/e_cardinal_vowels.html

기본모음을 녹음할 때 함께 간행한 해설집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읽어 보기 바랍니다.

초분절음의 전사

이제까지 자음과 모음의 전사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자음, 모음은 모두 분절음(分節音 segment)입니다. 자음과 모음은 하나씩, 계기적(繼起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쪼갤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분절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소리의 길이라든가 높낮이 등은 분절음에 얹혀서 동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초분절음(超分節音 suprasegmental)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초분절음으로는 음장(音長 length), 강세(强勢 stress), 음고(音高 pitch)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한국어와 관계되는 초분절음은 음장과 음고입니다. 한국어는 크게 보아 한반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음장 방언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음고 방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장은 IPA에 의하면 ‘ː’과 같은 기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

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콜론(:)으로 대체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A에서는 장음보다 짧은 '반장음(半長音 Half-long)'을 위해 점이 하나만 있는 'ˑ'과 같은 기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기술에서는 이 반장음 기호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장음보다는 오히려 장음보다 더 긴 장음을 위한 기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표현적 장음(表現的 長音 expressive length)을 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표현적 장음은 어휘적 장음(語彙的 長音 lexical length)와 달리 비어두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어휘적 장음보다 길며 표현의 정도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표현적 장음은 그 길이를 고려하여 '시원::허다'처럼 장음 기호를 두 번 겹쳐서 쓰면 좋겠습니다.

어휘적 장음과 표현적 장음을 표기한 전사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그래가주구 그 풍선과 겉이 매달아 놨어요, 공중에다. 그 때 하나, 뚤, 셋 헐 때 풍선은 날라가구 그 종은 스륵:: 내려오는데 아주 깊::은 지하실이 물이 지붕에서 여기만큼 팬: 지하실을 그 속을 또 그만큼 패:가지고 그 종이 들어가는데 그 종이 슬그머::니 들어가서 인제 양회루다가 이렇게 멧돌겉이 둥::그런 걸 맨들어서

동남, 동북방언과 강원도 지역의 일부 방언에서는 음고의 차이가 음운으로서 기능합니다. 이를 성조(聲調 tone)로 보기도

하고 음고 악센트(pitch accent)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내 학자들은 '성조'로, 국외(일본과 구미) 학자들은 음고 악센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장에 비한다면 음고의 차이를 정확하게 전사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같은 동남방언을 두고도 저조(低調)와 고조(高調)의 차이만을 인정하는 학자도 있고 저조, 고조 외에 중조(中調)까지 설정하려는 학자도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음고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뚜렷이 제시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할 수 있다면 水谷修, ≪聞く日本語·話す日本語≫(The Japan Times, 1990)의 일본어 악센트 부분을 참조하기를 권합니다(9-11쪽). 교재에 딸린 카셋트 테이프로 2, 3음절의 간단한 음고 유형을 훈련해 볼 수 있습니다.

IPA에 의하면 음의 고저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합니다. 몇 가지 예만 제시합니다.

é 高平調(High)
è 低平調(Low)
ê 下降調(Falling)
ě 上昇調(Rising)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된 ≪韓國方言資料集≫은

이런 표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방언이 고저의 대립만을 가질 경우에는 고조만을 표기하고 저조는 아무 표기도 하지 않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고조만을 표기한 예를 ≪韓國方言資料集≫VII(慶尙北道 篇)에서 몇 가지 가져와 보겠습니다.

k^{h}ó^{ŋ}-i (콩-이)
posyín (버선)
pa:gími (바구미)
allaŋgÉmi (아지랭이)

이 외에 영어 High, Low, Rising, Falling 의 첫 자를 따서 H(高平調), L(低平調), R(上昇調), F(下降調)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중세한국어 성조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표기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硏究(再版)≫(塔出版社, 1977)에서 한 예를 가져와 봅니다.

입과 HH
이베 LH
기드리숩더니 LHLRLH

연구자에 따라서는 음성형의 위와 아래에 선을 그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선으로 음고를 표시하는 방법은 S.R.Ramsey의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塔出版社, 1978)에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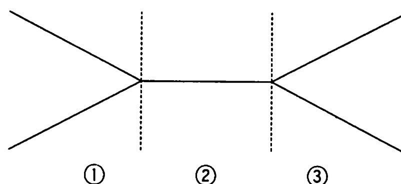
3. 전사의 실제

음절말 장애음의 변이음 실현

외국인이 한국어 자음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장애음(障碍音 obstruent)에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없다, 그 대신 평음, 격음, 경음의 구별이 있다, s는 유성음 환경에서도 유성음화하지 않는다 등이겠지요. 이 특징 중에는 음절말에서 장애음이 불파(不破 unreleased)된다는 사실도 꼭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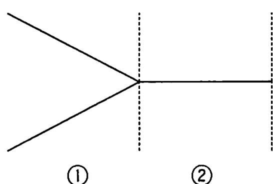
'불파된 음' 즉 '불파음'이란 무엇일까요? '불파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애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음 중 입 안에서 폐쇄나 협착 등에 의해 기류에 많은 저해를 일으키는 음의 부류들을 장애음이라고 합니다. 장애음에는 폐쇄에 의한 파열음(破裂音 plosive), 협착에 의한 마찰음(摩擦音 fricative) 그리고 파열과 마찰에 의한 파찰음(破擦音 affricative)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불파음은 이 파열음의 일종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파열음이 발음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 보도록 합시다.



파열음은 일반적으로 이상의 그림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즉 숨이 아무런 저해를 받지 않고 흘러 나오는 단계(①), 조음점과 조음체의 접촉에 의해 숨이 폐쇄되는 단계(②) 그리고 접촉했던 조음점과 조음체가 떨어지면서 숨이 다시 개방되어 흘러 나가는 단계(③). 위 실선은 윗입술, 아래 실선은 아랫입술이라고 생각하고 '아바'를 발음해 보면 위의 그림이 더 잘 이해됩니다. '아'를 발음하는 단계에서는 ①처럼 두 입술이 떨어져 있다가 '바'의 'ㅂ'가 시작되면 ②처럼 두 입술이 붙습니다. 그 후에 '바'의 'ㅏ'가 시작되면 다시 ③처럼 두 입술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파열음 'ㅂ'가 발음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압'을 발음해 보십시오.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겠지요.



'아바'와는 달리 두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류가 개방되는 ③의 단계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뒤에 다른 자음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열음 중 ③의 단계가 없는 음을 불파음(不破音 unreleased)이라고 합니다. 논저에 따라서는 '미파음(未破音), 내파음(內破音)'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음절말 위치에서 장애음이 언제나 불파음으로만 발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위에 영어 모어화자가 있으면 실험해 보기 바랍니다. 영어는 음절말이라고 해도 불파음으로 날 수도 있고 순수한 파열음일 수도 있습니다. cap, cat, cook 등 장애음으로 끝난 단어를 발음시켜 보면 되겠지요

음절말에서 장애음이 불파음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한국어 음운론을 다루는 대부분의 개론서에도 언급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들은 대부분의 개론서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저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을 관찰 대상으로 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실험이 쑥스러운 사람은 거울을 보고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음절말에서 실현되는 장애음은 'ㅂ, ㄷ, ㄱ'입니다. 'ㅂ'부터

해 봅시다. 다음 단어 또는 어구를 발음하도록 '관찰 대상'에게 부탁하고 입술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집, 잡구, 덮지 마라

'덮지 마라'는 형태음운표기이고 실제 발음은 /덥찌 마라/인 것에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때의 'ㅂ'은 모두 불파음인 것을 확인했습니까? 뒤에 자음이 올 때는 그 자음을 발음하기 위해 입술이 떨어지지만 이것은 뒷자음의 ① 단계입니다.

이제 뒤의 자음이 마찰음 'ㅅ' 인 경우를 관찰해 봅시다.

입술

앞의 예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상대방에게 조금 천천히 발음해 주도록 부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때의 'ㅂ'는 조금 짧기는 하지만 개방이 되는 ③의 단계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의 음절말 'ㅂ'는 불파음이 아닌 것입니다.

IPA에 의하면 불파음은 보조기호 'ˀ'을 오른쪽 어깨에 붙여서 표시합니다. '잡구'와 '입술'을 IPA를 써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잡구　[tɕap˺k'u]

입술　[ips'ul]

특히 해당 파열음이 불파음이 아니라 ③의 단계까지 온전히 갖춘 파열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보조기호 ‘<’를 오른쪽 어깨에 붙이기도 합니다.

입술　[ip$^{<}$s'ul]

이러한 사정은 ‘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예들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녹, 밖두

악수

‘악수’의 음절말 ‘ㄱ’도 불파음이 아닌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음절말 자음이 ‘ㄷ’인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잠시 접어 두도록 합시다.

이제 한국어 음절말 자음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음절말 장애음은 일반적으로 불파음으로 발음됩니다. 이것은 한국어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오는 자음이 ‘ㅆ’일 경우는(장애음 뒤에

는 평음이 올 수 없으므로 언제나 'ㅆ'입니다.) 순수한 파열음으로 발음됩니다. 마찰음 'ㅆ'을 발음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찰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마찰을 일으킬 공간이 필요한데 폐쇄 상태가 지속되면 마찰음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음 'ㅜ'의 발음

음성을 정밀하게 관찰하면 머리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모음 'ㅜ'를 예로 들어 봅시다.

다 아는 것처럼 모음 'ㅜ'는 후설모음이고 고모음이면서 원순모음입니다. 입술[脣]이 둥글게[圓] 되는 모음이지요. 모음 'ㅡ'는 다른 것은 다 'ㅜ'와 같지만 입술이 둥글지 않다[非圓]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모음 'ㅚ'의 원순성 정도가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방언 간의 차이이지만 같은 방언 내에서도 어떤 음들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음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음 'ㅜ'가 양순음과 양순음이 아닌 다른 음, 다시말해서 치조음이나 연구개음과 함께 발음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양순음(兩脣音 bilabial)이란 말 그대로 두 입술을 맞닿게 해서 발음하는 자음이지요. 한국어에는 'ㅂ, ㅃ, ㅍ, ㅁ'이 여기에 속합니다. 양순음과 양순음이 아닌 다른 음 뒤에 'ㅜ'가 온다면

어떤 쪽의 원순성이 더 강할까요? 다시말해서 어느 'ㅜ'가 더 입술이 동그랗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답했습니까? 아마도 양순음 쪽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순음은 발음을 할 때 입술이 관여하니까 왠지 원순모음과 비슷한 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실제는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아까처럼 친구나 가족에게 다음의 단어를 발음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은 관찰만 하세요.

물 - 굴
푸다 - 쑤다

어떻습니까? '물, 푸다'보다는 '굴, 쑤다' 쪽이 'ㅜ'의 원순성이 더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현상은 양순음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양순음이란 말 그대로 두 입술을 '붙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두 입술을 붙이면 입술의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거울을 보세요. 두 입술은 평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순음에 대해서 이것이 원순음인가 원순음이 아닌가 답해야 한다면 당연히 원순음이 아니라고 답하게 됩니다. 양순음을 내기 위해서는 두 입술이 붙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면서 두 입술을 붙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음성의 미묘한 차이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사를 학부과정에서 배운 사람이라면 '원순모음화(圓脣母音化 labialization)'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겠지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형태소 내부에 양순음 뒤에 모음 'ㅡ'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순음 뒤에서도 모음 'ㅡ'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믈 (水)
블 (火)
쁠 (角)

그러던 것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환경에 놓인 모음 'ㅡ'는 모두 '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믈 > 물
블 > 불
쁠 > 뿔

원순모음이 아닌 'ㅡ'가 원순모음인 'ㅜ'로 바뀐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음운변화를 원순모음화라고 부릅니다. 원순모음화는 동화의 일종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순모음화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원순모음의 원순성은 일반적으로 [round]라는 자질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양순음인 자음은 원순음이 아니므로 [-round]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이제 위의 예들이 보여주는 음운변화를 자질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round] > [+round] / [-round] ______

이상의 도식만을 보면 이 변화는 동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화(異化 dissimilation)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전통적인 [round] 자질보다는 [labial]이라는 자질을 선호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양순음과 원순모음은 둘 다 발음할 때 입술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round]를 기준으로 세우면 하나는 [+] 다른 하나는 [—] 라는 값을 갖게 되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음인 것처럼 됩니다. 따라서 그냥 '입술이 조음에 관여한다'는 조음적 사실을 기준으로 내세워 [labial]이라는 자질을 설정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도 양순음을 발음할 때는 입술이 동그랗게 되지 않는다는 관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론은 항상 자료가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 발전되어야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사와 기저형 설정

70년대 이후 음운론의 주된 관심사는 '기저형(基底形 underlying form), 표면형(表面形 surface form), 음운규칙(音韻規則 phonological rule)' 이 셋에 집약되었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 개념은 '교체(交替 alternation)'를 설명하기 위한 생성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러 이형태(異形態 allomorph)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하여 나타날 때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기저형을 하나 세우고 여기에 음운규칙들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음성형들을 설명해 내는 것이 생성문법의 방법입니다.

한국어의 경우는 이른바 '불규칙용언(不規則用言 irregular verb)'이 이 생성문법적 설명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웃:다(笑)'가 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교체의 양상을 보여 주는 데 비해 '짓:다(作)' 등은 불규칙적이라는 것이 전통문법의 설명이었습니다.

웃:다, 웃어서, 웃으면
짓:다, 지어서, 지으면

그러나 추상적인 기저형의 설정이 허용되면서 표면형에서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이 용언들도 실은 '규칙적'인 것이라는 가설들이 무수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추

상적인 설명 방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학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저형 설정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좀 다른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전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래의 활용형들은 전통적인 서울말을 포함한 경기방언의 예들입니다. 자음어미와의 결합형, 모음어미와의 결합형,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을 순서대로 제시하되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은 가운데 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직접 음성형을 듣고 전사하는 훈련까지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IPA를 써서 대신 전사해 드리겠습니다. 이 활용형들을 보고 어간의 기저형을 생각해 봅시다.

{燒} ku:tɕ'i ma:ra, kwə:sʌ · kwə:ra, ku:mjʌn

{臥} nu:tɕ'in ana, tɯrʌnwʌsʌ, nu:mjʌn

{縫} ki:nnɯn · ki:tk'u, kjə: sinnɯnda · kijʌ ibʌs'ʌ, ki:mɯn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표준어형에 이끌려 ㅂ불규칙용언인 '굽:다, 눕:다, 깁: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는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서는 우선 활용형 'ku:tɕ'i, nu:tɕ'in'을 눈여겨 봅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한글자모로 바꾸면 '구:찌, 누:찐'이 됩니다. 모음 뒤에서 어미의 두음이 경음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때의 경음은 음절말 장애음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음절말에 올 수 있는 장애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ㅂ, ㄷ, ㄱ' 셋입니다. {燒, 臥}에 해당하는 표준어가 '굽다, 눕다'이므로 '굽:지, 눕:진'에서 'ㅂ'가 탈락한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굽:지, 눕:진'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들을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위의 예 중 'kwə:sʌ(궈:서), tɯrʌnwʌsʌ(드러눠서)'입니다. '구워서, 드러누워서'가 아닌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w가 발견되지 않으므로('궈:서'의 반모음 w는 어간 모음 'ㅜ'가 반모음화된 것입니다.) 이 동사들은 ㅂ불규칙용언이 아닙니다.

'ㅂ'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구:찌, 누:찐'으로 돌아가 탈락된 음절말 자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ㅂ, ㄷ, ㄱ' 셋 중 하나라면 'ㅉ'와 조음위치가 가장 가까운 'ㄷ'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표준어에서 ㅂ불규칙동사인 '깁다'도 'ki:tk'u(긷:꾸)'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런 추정이 매우 그럴 듯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굽다, 눕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굳:지, 눋:진'이라는 발음이 가

능하다고 해도 이것은 '굽:지, 눕:진'에서 음절말 자음 'ㅂ'가 후행하는 'ㅈ'에 조음위치 동화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래 (a)에서처럼 한국어에서 [-grave] 자질을 가진 음절말 자음 'ㄷ'가 [+grave] 자질을 가진 'ㅂ, ㄱ'로 조음위치를 바꾸는 일은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인 (b)는 없습니다.

a. 받구 ~ 박구
   밭보다 → 받보다 ~ 밥보다

b. 입드라 ~ 읻드라×
   익지 ~ 읻지×

이상의 이유로 '구:찌(=굳:지), 누:찌(=눋:진)'의 어간말 자음을 'ㅂ'로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표준어형을 머리에서 지워 버리고 언어학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예문의 활용형들은 모두 자음 앞에서는 'Xㄷ', 모음 앞에서는 'X'와 같은 이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서울말과 경기방언에서 이와 같은 형태음운론적 패턴을 보이는 용언들은 이른바 'ㅅ불규칙'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위의 예들을 아래의 '젓:다'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젓:다(混)　전:지 마:라, 저:야, 저:믄

표준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표준어의 '젓다'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젓:다(混)   전:지 마:라, 저어야, 저으면

그러므로 이상의 용언들은 서울말과 경기방언에서 'ㅂ불규칙'이 아니라 'ㅅ불규칙'에 속하는 예들이 됩니다.

해석을 달리하여 이들 용언들의 어간말 자음을 성문폐쇄음 'ㆆ(ʔ)'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구:찌, 누:찐'에서 굳이 음절말 자음을 추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들이 'ㅂ불규칙' 용언이 아니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 용언들은 기원적으로 'ㅸ'을 말음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굽다 > 굽다(ㅂ불규칙)
눕다 > 눕다(ㅂ불규칙)

저의 추론에 의하면 예문의 용언 어간들은 ㅅ불규칙용언인 '굿:다, 눗: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굿:다, 눗:다'는 이전의 ㅂ불규칙용언인 '굽:다, 눕:다'에서 변화된 형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 한국어의 '잡숫다'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됩니다. 사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잡숫

다'는 'ㅅ불규칙용언'에 속하는 교체의 양상을 보여 줍니다.

잡숫다, 잡숴, 잡수면

이 '잡숫다' 역시 이전 시기에는 ㅂ불규칙동사인 '잡숩다'였습니다.

잡숩게 <癸丑日記 권지이 18>(17세기 초반)
잡ᄉᆞ와 <御製警世問答諺解 35b>(1761)
잡ᄉᆞ오면 <癸丑日記 권지일 40>

'잡숩다 > 잡숫다'의 변화를 보면 '굽:다 > 굿:다, 눕:다 > 눗:다' 등의 변화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깃:다'를 제외하면 모두 어간말 모음이 '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상의 예를 보면 어떤 이론적 입장을 취하든 간에 정밀한 관찰과 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지요. 무엇을 기저형으로 하는가의 문제는 표면형에 대한 정확한 전사를 한 다음에야 다룰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觸}을 의미하는 동사의 기저형을 찾아 보기 바랍니다. 영어로 touch에 해당되는 동사입니다. 기저형이 표준어형과 같은지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너무 높아서 손이 ______지 않아요

손이 ____야 꺼낼 수 있는데
손이 안 ____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의 발음은 앞에서부터 '다:찌, 다아야, 다으면'입니다. 이 동사 역시 기저형은 ㅅ불규칙인 '닷: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표준어형은 어간 말음이 'ㅎ'인 '닿다'입니다.

전사의 해석과 음성학

여러분은 혹시 ≪陰德記≫의 <高麗詞之事>란 자료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李基文, <陰德記의 高麗詞之事에 대하여>(≪國語學≫ 17, 1988)에 소개된 바 있고 일본에서는 志部昭平(시부 쇼헤이), <陰德記 高麗詞之事について－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假名書き朝鮮語資料(음덕기 고려사지사에 대하여)>(≪朝鮮學報≫ 128, 1988)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壬辰倭亂(1592), 丁酉再亂(1597) 당시 일본군이 한국어 회화집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369개의 단어, 短文을 가타카나를 이용해서 한국어의 음을 전사하고 옆에는 일본어 뜻을 적어 두었습니다.

<高麗詞之事>에 실린 한국어 자료는 16세기말의 동남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구어를 충실히 전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상 언어를 동남방언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

유가 있습니다. 우선 동남방언 특유의 어휘가 발견됩니다. 원문의 가타카나 표기와 함께 알파벳 표기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예문은 志部昭平(1988)에서 정리한 것을 가져 왔습니다.

ムカラ mukara

{食}에 해당하는 동사가 '묵다'인 지역은 대체로 경상도의 동남쪽입니다.

둘째로 모음조화의 양상이 중세한국어 문헌에 나타난 자료와 다르고 현재 동남방언과 유사합니다. 중세 한국어 어형도 옆에 들어 두겠습니다.

チヨエ シサラ(能洗へ) tsoe sisara (참조. 싯다)
ムラ ボラ(尋テ見ヨ) mura bora (참조. 묻다 問)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高麗詞之事>는 16세기 당시의 살아 있는 동남방언을 전사한 소중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의 모음 수가 한국어에 비해 적기 때문에 모음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음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확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음들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한 대응이 보입니다. 역시 '참조' 부분은 중세국어형입니다.

ビソ(biso)	蠟燭	(참조. 밀초)
ブリ(buri)	水	(참조. 물)
ボリ(bori)	髮	(참조. 머리)
ダブ(dabu)	鑞	(참조. 납)
ヂ(ʤi)	齒	(참조. 니)
ヅウン(dzuun)	目	(참조. 눈)

'di, du'가 아니라 'ʤi, dzu'로 표기한 것은 일본어 자체에 'di, du'를 표기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자료를 통해 일본어 b 와 한국어의 m, 일본어 d 와 한국어 n 의 대응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 보이는 이러한 대응 관계는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사 과정의 오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전사한 일본의 다른 문헌에서도 이와 같은 대응 관계는 자주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국어 m, n이 일본어 b, d로 전사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성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분류상 m, n은 비음이고 b, d는 파열음에 속하지만 사실 이들은 매우 비슷한 음들입니다. m과 b는 양순음, n과 d는 치조음으로 조음위치가 같습니다. 조음방법상으로 보아도 이들은 모두 유성음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m과 b, n과 d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m, n과 b, d는 전자가 비음(鼻音 nasal)이고 후자는 구음(口音 oral)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m, n을 발음할 때는 구개범(口蓋帆 velum)이 개방되어 구강(口腔 oral cavity)뿐 아니라 비강(鼻腔 nasal cavity)으로도 기류가 흘러 나가고 b, d를 발음할 때는 구개범이 인두벽(咽頭壁)을 막아서 기류가 구강으로만 흘러 나간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 구강 내에서 '폐쇄 - 지속 - 개방'의 세 단계를 거치는 점은 비음인 m, n이나 구음인 b, d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m, n 역시 넓게 보아 파열음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음의 경우는 기류의 일부가 비강 쪽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입 안에서의 공기 압력이 약하고 그 결과 파열의 정도가 구음에 비해 약합니다. 결국 m과 b, n과 d는 넓은 의미에서 파열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구개범이 개방되느냐 아니면 폐쇄되느냐는 차이점만을 가집니다.

그런데 구개범의 폐쇄 혹은 개방이 조음의 전체 단계에 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음은 순수한 비음도, 순수한 구음도 아닌 중간적인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적인 음은 크게 보아 4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비음적 요소가 앞에 조금 섞인 구음(예 : ^{n}d) ② 구음적 요소가 뒤에 조금 섞인 비음(예 : n^{d}) ③ 비음적 요소가 뒤에 조금 섞인 구음(예 : d^{n}) ④ 구음적 요소가 앞에 조금 섞인 비음(예 :

^{d}n).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그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지속부		
순수구음 (d)	--------	--------	--------
순수비음 (n)			
① (^{n}d)		--------	--------
② (n^{d})			--------
③ (d^{n})	--------	--------	
④ (^{d}n)	--------		

그림에서 점선(---) 부분은 구개범이 폐쇄된 상태를, 음영 부분은 구개범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순수 구음 'd'는 조음의 전과정 동안 구개범이 폐쇄되어 기류가 구강으로만 흘러 나갑니다. 반면 순수 비음 'n'은 조음의 전과정 동안 구개범이 개방되어 기류가 비강으로도 흘러 나갑니다. 나머지 ①에서 ④까지의 음들은 구개범의 폐쇄와 개방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구음이나 비음 외에 이 둘 사이의 중간적인 음들이 세계의 여러 언어에 존재한다는 보고가 Laver, J., ≪Principles of Phonetic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227-35)에 있습니다. 한국어의 비음 'ㅁ, ㄴ' 역시 이런 중간적인 음을 변이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어의 'ㅁ, ㄴ'를 'b, d'로 전사한 것은 그들에게 한국어의 'ㅁ, ㄴ'가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① 혹은 ③으로 들렸으며 그들이

이러한 한국어의 음성적 사실을 충실히 전사했다는 점을 말해 줍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이런 변이음의 존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단어들을 발음하거나 발음시켜 보십시오.

묵 - 마음
늑대 - 난초

어떻습니까? '마음, 난초'에 비해서 '묵, 늑대'의 경우는 같은 비음이면서도 조금 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현대 한국어의 경우는 특히 'ㅜ, ㅡ, ㅣ' 같은 고모음 앞에서 구음적 요소를 가진 비음 'ㅁ, ㄴ'이 자주 관찰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참고

후행하는 음절의 두음이 /ㅆ/일 경우에는 음절말 위치에서라도 파열된 [p˂, k˂]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菅野裕臣 外, ≪コスモス朝和辭典(第2版)≫(白水社, 1991, p.988)에서 기술된 바 있습니다. 유필재,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2001,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17)에서도 같은 보고가 있습니다.

표준어의 ㅂ불규칙용언들이 실제 자료에서는(경기방언) ㅅ불규칙용언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이승재, <방언 음운론>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1990, p.68)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잡습다 > 잡숫다'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필재, <'잡숫다'류 동사의 사전 기술>(≪서울말연구≫ 1, 2000)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ㅁ, ㄴ'가 구음적 요소를 가진 중간음이라는 사실을 음성학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음운체계, 방언구획과 연결시켜 설명한 업적은 李秉根, <동시조음규칙과 자음체계 : Prestopped Nasals를 중심으로>(≪말소리≫ 1, 1980)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보고는 시기적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 가는데 小倉進平, ≪國語及朝鮮語發音概說≫(近澤印刷所出版部, 1923), 服部四郎, <朝鮮語動詞の使役形と受身·可能形>(≪藤岡博士功績記念言語學論文集≫, 岩波書店, 1935)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4. 음운론적 해석

문자 'ㅓ'에 해당하는 서울말 모음

전통적인 서울말에서 문자 'ㅓ'에 대당되는 음성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음성이란 장음이면서 중설 쪽에서 발음되는 [ə:]와 단음(短音)이면서 후설 쪽에서 발음되는 [ʌ]가 그것입니다. [ə:]가 [ʌ]보다는 더 높은 쪽에서 소리납니다.

먼저 [ə:]의 예들을 보기로 합시다. [ə:, ʌ] 발음과 관계 없는 부분은 한글자모로 형태음운전사를 하겠습니다. 서울말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 괄호 안에 표준어형을 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pə:l을 길른다

tə:m을 준다

sə:lbimot 잘 차렸다

집을 tɕə:ra, 움물 tɕə:n(테두리), tɕ^{h}ə:n은 겹으루 헌다, tɕ^{h}ə:nE

kə:mbʌsʌs이 핀다, kə:ls'aŋ

hə:ŋgʌp

배를 ʃewʌ twə:ra

jə:ŋ 안들 사 먹어, 지붕을 jə:ra, mjə:ŋ이 길구

다음은 [ʌ]의 예들입니다.

pʌllʌʤi

tʰʌlbus이지, nʌlp'anʤi

sʌŋa가 슬지(성에), sʌks'i(석쇠)

tɕʌnɲumo(젖유모)

kʌjʌm이 나서(질투)

jʌlbagaʤi(가공하기 전의 박), pʰjʌŋpʰuŋ(병풍)

이상의 예들을 보면 [ə]는 모두 장음으로, [ʌ]는 모두 단음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음인 [ʌ:]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표현적 장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mʌlgʌ::ni 자빠졌어?

salgɯmʌ::ni

梅田博之, <韓國語の母音>(≪言語硏究≫106, 1994)에도 같은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노년층의 서울말 'ㅓ'가 약

간의 원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ɔ]로 전사합니다. 원문 그대로 인용합니다.

k'ɔ:mɔn

다음도 장음인 [ʌ:]의 예입니다만 앞의 것들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아 따로 제시합니다.

jʌ:l(十)
jʌ:ls'wE ~ jə:ls'E
병아리 길르는 ʌ:ri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ə]와 [ʌ]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ə 는 장음, ʌ 는 단음) 둘은 하나의 음소/ㅓ/의 변이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설에 대해서 두 모음 [ə]와 [ʌ]를 별개의 음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주장이 내세우는 논거를 검토해서 음운론적 해석의 타당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문자 'ㅓ'에 두 개의 음소를 배정한 논의로는 金敏洙, ≪新國語學≫(一潮閣, 1964, p.71)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모음인 'ㅓ:'는 /ɤ/로, 단모음인 'ㅓ'은 /ʌ/로 전사했습니다. 최소대립쌍으로 제시된 예 중 몇 가지만 제시합니다.

/pɤl/(蜂) : /pʌl/(原)
/ɤpta/(없다) : /ʌpta/(업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한 /ɤ/는 실제로는 /ɤː/이므로 다른 모음에서도 장단음의 대립이 존재하는 서울말에서는 최소대립쌍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후에 李炫馥, <서울말의 모음체계>(≪語學硏究≫ 7-2, 1971)가 이러한 주장을 이었습니다. 李炫馥(1971:23f)에서는 유사대립쌍인 '열:다 [jəːl-]'와 '열:(十) [jʌːl]'을 들어서 /əː/와 /ʌː/를 독립된 음소로 설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소대립쌍이 있으므로 두 음은 각각 음소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十}을 의미하는 형태소는 장모음인 jʌːl 뿐 아니라 단모음인 jʌl 로도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에는 단모음인 '열'이 표제어입니다. '열: [jʌːl]'이라고 장모음으로 발음하는 화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단모음 '열 [jʌl]'로 발음합니다.

열두명이
열네명이믄
열따섯살꺼정

이상의 사실은 '열:'의 장모음이 본래적인 것이 아님을 암시

합니다. 현대 서울말에서 장모음을 가진 형태소는 대부분 중세 한국어에서 상성으로 표기된 것들인데 '열:'은 중세한국어에서도 상성이 아니라 거성입니다.

'열:'이 장모음인 것은 수사 계열의 리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에서 9까지 모두 두 모라(mora)인 단어들이니 10 역시 이에 맞추기 위해 장음으로 발음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梅田博之(1994:6)에서는 '열'의 이런 변화를 '類推形'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계열의 리듬'은 李秉根·崔明玉, ≪國語音韻論≫(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의 설명입니다.

사전 중에도 ə 와 ʌ 를 별개의 음소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남광우·이철수·유만근, ≪한국어표준발음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에서는 현대 표준한국어의 음소로 'i, e, ɛ, a, ʌ, u, ɯ, ə' 9 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자 'ㅓ'에 해당하는 두 모음을 별개의 음소로 설정한 본격적인 논의는 梅田博之, <서울말의 모음 변화에 대하여>(≪들메서재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啓明大學校出版部, 1991)과 앞에서 언급했던 梅田博之(1994)입니다. 이 두 논문에서는 본고의 ʌ 를 ɔ 로 전사하고 있는데 인용할 때도 원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梅田博之(1991, 1994)에서 음소 ə와 ɔ(본고의 ʌ)를 설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울말에서는 어두 위치에서 모음의 장단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ə와 ɔ처럼 장단 때문에 음가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로 [jɔ:l, k'ɔ:mɔn] 처럼 장모음으로 나타나는 ɔ 의 예도 있고 [tʃəi, jəls'we]와 같이 단모음으로 나타나는 ə 도 있습니다.

둘째 논거부터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거로 제시된 [k'ɔ:mɔn]은 梅田博之(1994:6)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적 장음의 경우입니다. 표현적 장음이기 때문에 비어두에서도 이런 모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mʌlgʌ::ni

salgɯmʌ::ni

그런데 어휘적 장음이 아닌 표현적 장음을 음소 분석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또다른 논거인 [jɔ:l]은 梅田博之(1994:6)에서도 유추에 의한 어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열:'은 완전한 장음이 아닌 것입니다.

[jəls'we]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단어 역시 모음의 음가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단어는 [jə:ls'E]와 [jʌ:ls'wE]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것은 아마

도 {開}를 의미하는 이형태로 /jə:l-/과 /jʌl-/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jə:lgu, jʌrʌra, jə:lmɯn

결국 [tʃəi]를 제외하면 논거가 된 예들은 모두 조금씩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음소 분석을 위한 전형적인 예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변이음들과 동형성(同型性 pattern congruity)을 보이지 않는다는 첫 번째 논거는 두 번째 논거에 비하면 더 그럴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ə와 ʌ 두 음에 의한 최소대립쌍은 역시 제시할 수 없습니다.

梅田博之(1991, 1994)의 첫 번째 논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현대한국어와 달리 근대 시기에 'ㅓ'는 음성적으로 중설모음인 [ə]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후설 쪽에 자리잡고 있던 'ㆍ'가 모음체계에서 사라짐에 따라 그 빈 칸을 메우기 위해 'ㅓ'는 후설 쪽으로 끌리게 되어 후설모음인 [ʌ]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ㆍ'는 비어두에서 'ㅡ'로, 어두에서 'ㅏ'로 변하는 두 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후대에 변화한 'ㆍ'는 'ㅓ' 모음으로 바뀐 예가 많습니다. 다음은 서울말의 예입니다.

네리다(< ᄂᆡ리다)
데리다(< ᄃᆞ리다)
겉다(< ᄀᆞᇀᄒᆞ다)
허다(< ᄒᆞ다)
벌써(< ᄇᆞᆯ셔)
-더러(< ᄃᆞ려)
-꺼정(~꺼장)(< ᄭᆞ장)

이 변화도 'ㅓ'가 'ㆍ'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후설 쪽으로 옮겨가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ㆍ'와 합류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장음인 'ㅓ:'는 왜 중설 쪽에(ə:) 남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19세기에 있었던 중모음의 고모음화(ə: → ɯ:) 때문일 것입니다. 李秉根,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東亞文化≫ 9, 1970)에서는 19세기에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장모음인 'ㅔ:, ㅓ:'가 'ㅣ:, ㅡ:'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ㅓ: > ㅡ:'의 변화를 반영한 예로 추정되는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끄리나(忌) <國漢會語>(1895)
으드리니(得) <竈君靈蹟誌 6a>(1881)

이 중모음의 고모음화 때문에 단모음 ə 가 후설로 옮겨 간

것과 달리 고모음 쪽으로 올라간 장모음 ə: 는 중설 위치에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이유 때문에 음소 'ㅓ'에 해당하는 변이음들은 다른 모음들과는 다른 변이음의 분포 양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뚜ㅕ: 간다'는 어떻게 표기할까?

다음은 서울말을 포함한 중부방언에서 모음 'ㅟ'로 끝나는 동사 어간에 '어'로 시작되는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활용형들의 예입니다.

a. 뛰 + 어 → 뚜ㅕ: ~ 뛰여
　 튀 + 어서 → 투ㅕ:서
　 휘 + 어 → 후ㅕ: ~ 휘어 바:라

b. 쉬:(腐) + 어 → 쉬여 ~ 쉬어서
　 뉘:(使臥) + 어가주구 → 누ㅕ:가주구 ~ 뉘여
　 쥐:(주먹을~) + 어라 → 주ㅕ:라
　 꿔:(돈을~) + 어 → 꾸ㅕ: ~ 꿔여

c. 사귀 + 었구나 → 사구ㅕㅆ구나
　 바뀌 + 어서 → 바꾸ㅕ서
　 할퀴 + 어서 → 할쿠ㅕ서

사위 + 었다 → 사우ᅧᆻ다

(a)는 1음절 어간이면서 단모음(短母音)일 경우이고 (b)는 1음절 어간이면서 장모음일 경우, 그리고 (c)는 다음절 어간일 경우의 예들입니다.

위의 예들이 말해 주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음절 어간일 때는 반드시 반모음화를 겪습니다.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사귀어, 사귀여' 등의 발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음절 어간일 때는 반모음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모음화를 겪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지만(예 : 뚜ㅕ:) 반모음 j 가 삽입되기도 하고(예 : 뛰여) 드물게는 어간 모음 'ㅟ'와 어미 모음 'ㅓ'가 그대로 연결되기도 합니다(예 : 휘어). 다만 이처럼 어간 모음과 어미 모음이 직접 결합되는 예는 두음이 마찰음인 어간 '휘:다, 쉬:다' 등에 한정됩니다.

결국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모음 'ㅟ'로 끝나는 동사 어간이 '어'로 시작되는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반모음화를 겪은 활용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모음화를 겪은 활용형을 어떻게 음운표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음운표기 이전에 음성표기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언급한 논저는 앞에서 언급한 남광우·이철수·유만근, ≪한국어표준발음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이 아닌가 합니다. 사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술만이 보입니다.

ɥiʌ 는 ɥə: 로 실현되기도 한다(viii 쪽)

이것은 예를 들어 '뛰어'가 일상적인 발화에서 '뚜ㅕ:'로도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宋喆儀, <國語의 滑音化와 관련된 몇 問題>(≪檀國語文論集≫1, 1995, p.287)에서는 이 'ㅜㅕ'(원문은 'ㅠㅕ')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기준은 어간 모음 'ㅟ'입니다. 'ㅟ'가 단모음이면 /ɥə/로, 이중모음이면 /wjə/로(원문은 wyə)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둘의 절충안으로 음성상으로는 [ɥə]이고 음소상으로는 /wjə/로 해석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인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신지영, ≪말소리의 이해≫(한국문화사, 2000)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신지영(2000:108)에서 든 예 중 1음절 어간과 다음절 어간 하나씩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자료에는 장음이 무시되었습니다.

/뛰 + 어/ → [뚜ㅕ] → [뗘]
/사귀 + 어/ → [사구ㅕ] → [사겨]

이 예들은 해당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t'wi + ʌ/ → [t'wjʌ] → [t'jʌ]
축약 w탈락

즉 신지영(2000:108)의 해석에 따르면 어간 모음 'ㅟ'는 이중모음 wi 인데 어미 ʌ 와 결합하면 축약이 일어나 [wjʌ]와 같은 삼중모음(三重母音 triphthong)을 만들기도 하고 [w]가 탈락하여 [j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영어의 표면 음성형에서 관찰되는 이 치경 파찰음 [ts]나 우리말의 표면음성형에서 관찰되는 삼중모음 [wjʌ]는 영어나 우리말의 음소 체계 안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기저 음소 /t/와 /s/, /wi/와 /ʌ/가 형태소 경계를 두고 연결되면서 생기는 표면 음성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109쪽).

본문에서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설명에 따르면 음성표기 [t'wjʌ]는 음운론적으로 /t'wiʌ/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장음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뚜ㅕ:/처럼 장음을 반영하면 이것은 보상적 장모음화인데 그러면서도 음절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시한 서울말(중부방언) 자료로 되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말 자료는 신지영(2000)보다는 남광우·이철수·유만근(1984)의 기술과 일치합니다. 활용형에 나타나는 'ㅜㅕ'는 장음일 때는 [ɥəː]로(예 : 뚜ㅕ:), 단음일 때는 [ɥʌ]로 나타납니다(예 : 사구ㅕ).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əː]와 [ʌ]는 음장에 따른 상보적 분포를 보이므로 하나의 음소 /ㅓ/의 변이음으로 처리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반모음 [ɥ]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모아집니다.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宋喆儀(1985)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ɥ]를 j 의 원순음인 반모음 /ɥ/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의 반모음은 w, j, ɥ 세 개가 됩니다. 당연히 이중모음의 목록도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릅니다. 우선 이 때의 반모음 ɥ 는 모음 'ㅓ'와만 결합합니다. 형태소 내부에서는 발견되지 않음은 물론 어간 말음이 'ㅟ'인 용언의 활용형에서만 나타납니다. 극히 한정된 분포만을 가진 음소라는 어색한 설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신지영(2000)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뚜ㅕ:]는 일상의 발화에서 [뗘:]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잘못 쓰는 맞춤법 중

에 '사귀어'를 '사겨'로 잘못 쓰는 것도 이런 부류의 발음이 실제로 존재함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뗘:, 사겨] 등은 [뚜ㅕ:, 사구ㅕ]에서 반모음이 탈락된 발음으로 생각됩니다. '계산, 혜택' 등도 일상의 발화에서는 흔히 [게산, 헤택]으로 발음됩니다. 반모음 j가 자음 뒤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만약 반모음 ɥ 를 인정하여 [뚜ㅕ:, 사구ㅕ]를 /t'ɥʌ:, sagɥʌ/로 해석한다면 이 때 반모음이 탈락된 결과는 [떠:, 사거]입니다. 물론 이런 발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뚜ㅕ:, 사구ㅕ]를 /t'wjʌ:, sagwjʌ/로 해석한다면 [뗘:, 사겨]는 반모음 w가 탈락한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면 [ɥ]는 /wj/로 재분석하여 음운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ɥə:]는 /wjʌ:/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wjʌ/ 같은 음운연쇄를 모음체계의 어느 부분에 소속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금세 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삼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wjʌ/만으로 삼중모음 체계를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宋喆儀(1985:287)에서도 반모음 w와 j의 연쇄가 한국어에서 가능한 것이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혁화, <국어 반모음 'ɥ'의 음성학과 음운론>(≪語學硏究≫38-1, 2002, p.351)에서 /wjʌ/와 같은 음소연쇄를 인정할 경우 '자음 + 반모음 + 반모음 + 모음'과 같은 특이한 음절 구조를 국어에 상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

습니다. 이 역시 타당한 지적입니다.

결국 반모음 'ɥ'의 인정 문제는 좀더 많은 자료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가 있어 참조가 됩니다. 이승재, <방언음운론>(≪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1990, p.53)에서는 서남방언에서 음성적으로 삼중모음 jwa 가 관찰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말류 + 아 → 말료ㅑ [maʎʎwa]

음성표기 [maʎʎwa]에서 구개화된 두 번째 [ʎ]을 음운론적으로 분석하면 /lj/가 되어 음운표기로는 /molljwa/로 해석됩니다. 이 때의 삼중모음 jwa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남방언에서도 이것 외에는 삼중모음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활용형에서만 나타난다는 분포상의 제약도 서울말의 예와 같습니다.

한편 배주채, ≪고흥방언 음운론≫(태학사, 1998, p.33)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도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외' 처리입니다. 이 삼중모음 jwa를 아예 체계 밖으로 밀어내고 '예외적인 존재'로 다루자는 것입니다.

배주채(1998)도 앞에서 제기한 '뚜ㅕ: 간다'의 해석에 대한 한 방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울방언의 예는 서남방언의 그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남방언의 경우 삼중모음 jwa가 어간 '말류-'에 어미 '-아'가 결합할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

한 처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말의 경우에는 어간이 'ㅟ'로 끝나는 모든 동사가 '어'로 시작되는 어미들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존재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철의 음운론적 해석

한글은 字母文字이면서도 실제로는 음절문자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아쓰기(syllabic writing)'를 정서법의 원리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모아쓰기'란 'syllabic writing'이라는 영어 번역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절 단위로 문자를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ㅂㅏㅂ'처럼 쓰지 않고 '밥'처럼 씁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이나 체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때 '모아쓰기'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간 말의 자음을 앞 음절의 종성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뒷 음절의 초성으로 쓸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밥 + 을 → a. 바블 b. 밥을
먹 + 어 → a. 머거 b. 먹어

전통적으로 (a)와 같은 방식의 표기를 '연철(連綴)'이라고 하고 (b)와 같은 방식의 표기를 '분철(分綴)'이라고 합니다. 한

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연철을 했고 1933년 '한글마춤법 통일안'이 제정된 이후에는 분철이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두 시기 사이, 특히 근대국어 시기와 개화기에는 두 가지 방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표기가 많이 발견됩니다.

a. 龐統이 <u>갑파</u> ᄃᆡ답ᄒᆞᄂᆞᆫ 거시 즉시 믈 <u>ᄒᆞ르ᄃᆞᆺ</u> ᄒᆞ더라 <삼역총해 7:16>(1703)

a′. 나모 가온ᄃᆡ셔 가디예 ᄲᅱ놀며 <u>넙페</u> 숨ᄂᆞ니 <두시언해 중간본 17:5b>(1613)

a″. 삭갓을 <u>쓰고</u> 바랑 지고 <u>집퓡이</u> 집고 <귀의성(하)>(1906)

b. 이ᄂᆞᆫ ᄂᆡᆼ의 샹ᄒᆞᆫ 증이니 귤피산으로 <u>곳티라</u> <마경초집언해 上:105>(1682)

b′. 누른 흙을 ᄲᅧ 코 <u>겻틔</u> 두어 내를 마티면 즉제 긋ᄂᆞ니라 <언해두창집요 下:1b>(1608)

b″. 밧탕 질 質 <국한회어 134>(1895)

c. 지아비 죽거ᄂᆞᆯ 손가락을 그처 관의 <u>녁코</u> <동국신속삼강행실도 烈 4:82>(1617)

c′. 당과 병풍이 네 <u>녁크로</u> 둘럿고 <태평광기언해 23b>(18xx)

c″. 인도국에 젼도 가셧던 <u>팍커</u> 목ᄉᆞ 부인ᄭᅴ셔 <신학월보 2:583>(1902)

(a, b, c)는 한글이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연철되어 '가파, 고티라, 녀코'로 표기되던 것들입니다. (c)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한국어에 어간 말음이 'ㅋ'인 용언이 없었기 때문에 어간 말음이 'ㅎ'인 '녛-'이 'ㄱ'로 시작되는 어미 '-고'와 결합된 활용형 '녀코 (← 녛 + 고)'를 대신 이용했습니다. (a′, b′, c′)는 체언의 예입니다. 연철 되었다면 '니페, 겨틔, 녀크로'로 표기되었을 예들입니다. (a″, b″, c″)는 각각 '지펑이, 바탕, 파커(Parker)'같은 형태소 내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음을 알려 주는 예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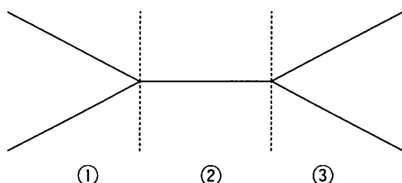
위의 예들의 공통점은 첫째, 연철도 아니고 분철도 아니라는 점, 둘째, 어간 말음이 격음일 경우에 같은 조음위치의 평음이 앞에 덧붙여 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치조음의 경우 'ㄷ'가 아니라 'ㅅ'인 점은 근대국어 당시의 표기 관습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음절말의 'ㄷ'를 'ㅅ'로 표기했습니다.

덧붙여서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표기 방식을 '중철(重綴)'이라고 합니다. 흔히 근대국어 시기는 표기상의 혼란이 심했다는 인식이 많습니다만 중철이 이러한 인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중철을 예전에는 '혼철(混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혼철'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러한 인식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기 방식은 '혼란'의 결과라기보다는 '폐쇄지속시간'이라는 음성학적 특징의 반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金周弼, <國語 閉鎖音의 音聲的 特徵과 音韻現象>(≪姜信沆敎授華甲紀念論叢≫, 太學社, 1990)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련 부분만 추려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파열음은 먼저 숨이 아무런 저해를 받지 않고 흘러나오는 단계(①), 그 후 조음점과 조음체의 접촉에 의해 숨이 폐쇄되는 단계(②) 그리고 접촉했던 조음점과 조음체가 떨어지면서 숨이 다시 개방되어 흘러 나가는 단계(③)를 거쳐서 조음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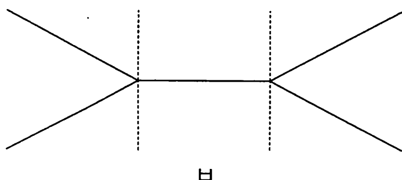


그런데 실험음성학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파열음이라 하더라도 ②의 폐쇄 단계가 지속되는 시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때 조음위치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격음과 경음이 평음에 비해 폐쇄가 지속되는 시간이 월등히 깁니다. 표진이, <한국어 폐색자음의 음향음성학적 양상>(한글 155, 1975)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millisecond(1/1000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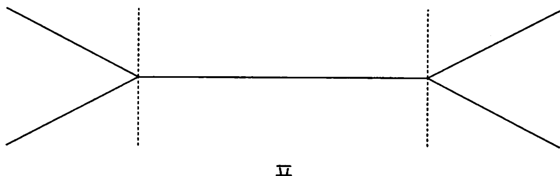
음소	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ㄲ
시간	10, 26, 27	11, 36, 49	11, 32, 43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격음, 경음은 평음에 비해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긴 시간의 폐쇄 과정을 겪습니다. 만약 가상적인 명사 '닙'을 상정하고 '닙에'와 '닢에'가 조음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이 될 듯합니다.

a. 평음(예 : 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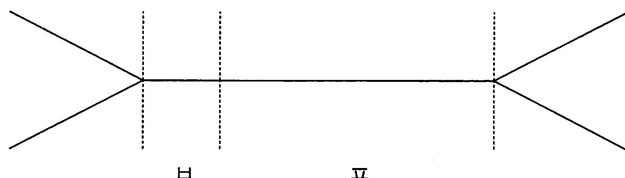


b. 격음(예 : 닢에)



그런데 평음의 폐쇄지속시간이 격음이나 경음에 비해 너무 짧기 때문에 화자들로서는 '평음 + 격음/경음'의 폐쇄지속시간

을 '격음/경음'의 폐쇄지속시간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화자의 인지상으로는 모음 사이의 '격음/경음'(예를 들어 '니페')와 모음 사이의 '평음 + 격음/경음'(예를 들어 '닙페')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폐쇄지속시간 때문에 '지펑이, 바탕, 파커'는 '집펑이, 밧탕, 팍커'와 혼동되기 쉬운 것입니다.

결국 근대국어 시기, 개화기 국어에 나타나는 중철은 폐쇄음의 이와 같은 음성학적 특징이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근대국어 시기, 개화기 자료를 분석해야만 표기에 가려진 당시 국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PC)도 많이 보급되었고 음성분석이나 음성합성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 보면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바, 아빠, 아파'처럼 평음, 격음, 경음을 발음하여 이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형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 부분이 파열음의 폐쇄 구간입니다. 아무 곳이

나 휴지(pause) 부분을 잘라서 '아바'의 폐쇄 구간에 붙여 줍니다. 다시 소리를 재생하면 '아빠'처럼 들립니다. 반대로 '아빠'의 폐쇄 구간을 좀 잘라 버리고 다시 소리를 재생해 보십시오. '아바'에 가까운 소리가 들립니다. '아파'의 경우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격음은 폐쇄지속시간 외에 'VOT(Voice Onset Time)'이라는 다른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國際音聲字母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1993년 개정판)

子音 CONSONANTS(肺氣流 pulmonic)

	兩脣音 Bilabial	脣齒音 Labiodental	齒音 Dental	齒槽音 Alveolar	後部齒槽音 Postalvelor	捲舌音 Retroflex
破裂音 Plosive	p b			t d		ʈ ɖ
鼻音 Nasal	m	ɱ		n		ɳ
舌顫音 Trill	ʙ			r		
彈舌音 Tap or Flap				ɾ		
摩擦音 Fricative	ɸ β	f v	θ ð	s z	ʃ ʒ	ʂ ʐ
舌側摩擦音 Lateral fricative				ɬ ɮ		
接近音 Approximant		ʋ		ɹ		ɻ
舌側接近音 Lateral approximant				l		ɭ

기호가 쌍으로 되어 있을 때 오른쪽 것이 유성음이다. 음영 부분은 조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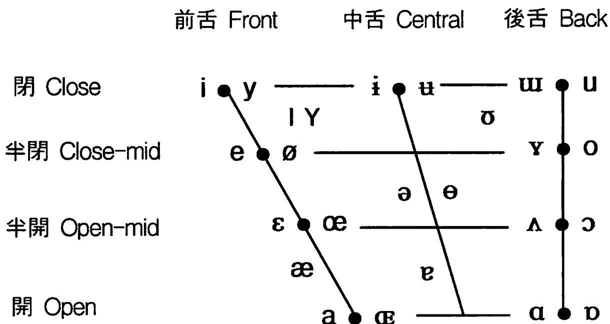
硬口蓋音 Palatal	軟口蓋音 Velar	口蓋垂音 Uvular	咽頭音 Pharyngeal	聲門音 Glottal
c ɟ	k g	q ɢ		ʔ
ɲ	ŋ	ɴ		
		ʀ		
ç ʝ	x ɣ	χ ʁ	ħ ʕ	h ɦ
j	ɰ			
ʎ	ʟ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다.

子音 CONSONANTS(非肺氣流 non-pulmonic)

吸着音 Clicks	有聲入破音 Voiced implosives	放出音 Ejectives
ʘ 兩脣音 Bilabial	ɓ 兩脣音 Bilabial	다음과 같이 ' 에 의해 표시함.
ǀ 齒音 Dental	ɗ 齒音/齒槽音 Dental/alveolar	pʼ 兩脣音 Bilabial
! (後部)齒槽音 (Post)alveolar	ʄ 硬口蓋音 Palatal	tʼ 齒音/齒槽音 Dental/alveolar
ǂ 齒槽硬口蓋音 Palatoalveolar	ɠ 軟口蓋音 Velar	kʼ 軟口蓋音 Velar
ǁ 齒槽舌側音 Alveolar lateral	ʛ 口蓋垂音 Uvular	sʼ 齒槽摩擦音 Alveolar fricative

母音 VOWELS



기호가 쌍으로 되어 있을 때 오른쪽 것이 원순모음이다.

그 외 기호 OTHER SYMBOLS

ʍ 無聲兩脣·軟口蓋摩擦音 Voiceless labial-velar fricative
w 有聲兩脣·軟口蓋接近音 Voiced labial-velar approximant
ɥ 有聲兩脣·硬口蓋接近音 Voiced labial-palatal approximant
ʜ 無聲喉頭蓋摩擦音 Voiceless epiglottal fricative
ʢ 有聲喉頭蓋摩擦音 Voiced epiglottal fricative
ʡ 喉頭蓋破裂音 Epiglottal plosive
ɕ ʑ 齒槽·硬口蓋摩擦音 Alveo-palatal fricatives
ɺ 齒槽舌側彈舌音 Alveolar lateral flap
ɧ ʃ와 x의 同時調音 Simultaneous ʃ and x

파찰음과 이중조음은 필요할 경우 2 개의 기호를 이음줄(tie bar)로 연결해서 표시할 수 있다. k͡p t͡s g͡t

超分節音 SUPRASEGMENTALS

ˈ 第1强勢 Primary stress ˌfoʊnəˈtiʃən
ˌ 第2强勢 Secondary stress
ː 長音 Long eː
ˑ 半長音 Half-long eˑ
˘ 특히 짧은 Extra-short ĕ
. 音節境界 Syllable break ɹi.ækt
| 小그룹(音步그룹) Minor(foot) group

‖ 大그룹(抑揚그룹) Major(intonational) group

‿ 연결된(끊김이 없는) Linking(absence of a break)

聲調와 音高악센트(TONES & WORD ACCENTS)

平板調(LEVEL)

e̋ 또는 ˥ 超高平 Extra high
é 또는 ˦ 高平 High
ē 또는 ˧ 中平 Mid
è 또는 ˨ 低平 Low
ȅ 또는 ˩ 超低平 Extra low

昇降調(CONTOUR)

ě 또는 ˩˥ 上昇 Rising
ê 또는 ˥˩ 下降 Falling
e᷄ 또는 ˧˥ 高上昇 High rising
e᷅ 또는 ˩˧ 低上昇 Low rising
e᷈ 또는 ˧˦˧ 上昇下降 Rising falling

↓ 단계적하강 Downstep

↑ 단계적상승 Upstep

↗ 전반적인 상승 Global rise

↘ 전반적인 하강 Global fall

補助記號 DIACRITICS

̥ 無聲音化된 n̥ d̥ Voiceless	̤ 氣息音化된 b̤ a̤ Breathy voiced	̪ 齒音인 t̪ d̪ Dental
̬ 有聲音化된 s̬ t̬ Voiced	̰ 쉰 목소리의 b̰ a̰ Creaky voiced	̺ 舌尖的인 t̺ d̺ Apical
ʰ 有氣音化된 tʰ dʰ Aspirated	̼ 舌脣音인 t̼ d̼ Linguolabial	̻ 舌端的인 t̻ d̻ Laminal
̹ 圓脣性이 强한 ɔ̹ More rounded	ʷ 脣音化된 tʷ dʷ Labialized	̃ 鼻音化된 ẽ Nasalized
̜ 圓脣性이 弱한 ɔ̜ Less rounded	ʲ 口蓋音化된 tʲ dʲ Palatalized	ⁿ 鼻音開放 dⁿ Nasal release
̟ 前舌化된 u̟ Advanced	ˠ 軟口蓋音化된 tˠ dˠ Velarized	ˡ 舌側音開放 dˡ lateral release
̠ 後舌化된 i̠ Retracted	ˤ 咽頭音化된 tˤ dˤ Pharyngealized	̚ 不破音 d̚ No audible release
̈ 中舌化된 ë Centralized	̴ 軟口蓋音化 혹은 咽頭音化된 ɫ Velarized or pharyngealized	
̽ 中舌中母音化된 e̽ Mid-centralized	̝ 閉母音化된 e̝ (ɹ̝ = 有聲齒莖摩擦音) Raised voiced alveolar fricative	
̩ 成節的인 ɹ̩ Syllabic	̞ 開母音化된 e̞ (β̞ = 有聲兩脣接近音) Lowered voiced bilabial approximant	
̯ 非成節的인 e̯ Non-syllabic	̘ 舌根이 앞으로 나아간 e̘ Advanced Tongue Root	
˞ r 音色을 가진 ɚ Rhoticity	̙ 舌根이 뒤로 당겨진 e̙ Retracted Tongue Root	

음운론 연구와 음성전사

지은이 유필재

서울 출생(1969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199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1994년 문학석사, 2001년 문학박사). 日本 慶應義塾大學 訪問專任講師(1994년~1997년).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원 객원교수(2000년~2002년). 현재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ISBN 89-7868-852-7